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폭스클럽

<table>
<tr><td rowspan="8">1주차</td><td>일시</td><td colspan="2">1월 2일 13:00~14:00 장소명: 카페</td></tr>
<tr><td rowspan="6">참여 학생</td><td>클럽원 정보</td><td>참석 여부</td></tr>
<tr><td>오유진(2231273)</td><td>O</td></tr>
<tr><td>송예진(2231241)</td><td>O</td></tr>
<tr><td>신현지(2231012)</td><td>O</td></tr>
<tr><td>오시현(2231192)</td><td>O</td></tr>
<tr><td></td><td></td></tr>
<tr><td>진도</td><td>도서명: 타인에 대한 연민</td><td>진도 페이지: p.16 ~ p.54</td></tr>
<tr><td>토론 내용</td><td colspan="2">
[좌측부터 송예진, 오시현, 신현지, 오유진]

[1주차 토론주제]
1장 오해 아닌 이해를 위하여
2장 생애 최초로 마주한 두려움</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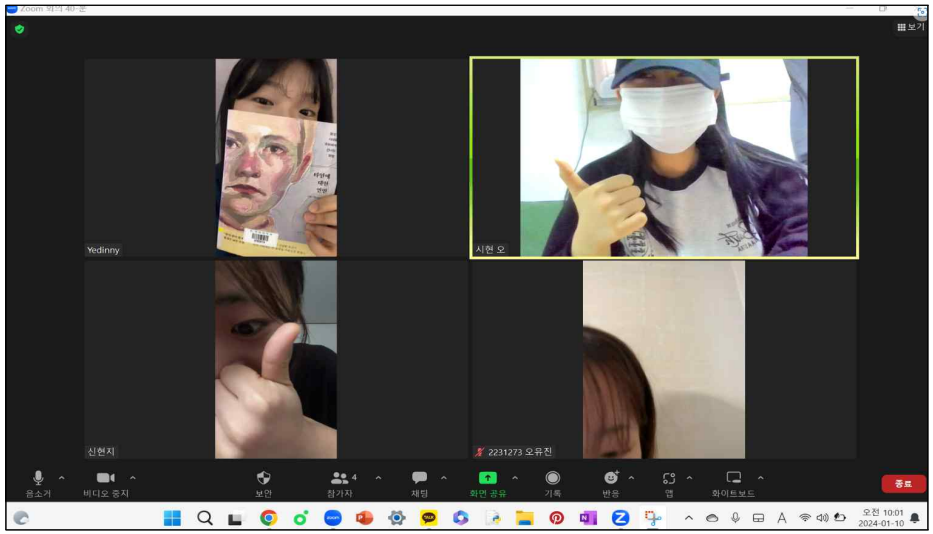
		1, 2장을 읽고 인상 깊었던 점과 느낀 점 토론하기 **송예진 1장**: 1장을 읽으며 나에게 철학이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나에게 철학이란 정의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럼에도 단순히 정의하자면 어떠한 것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작가는 1장 [철학은 사회를 구할 수 있는가?] 챕터를 통해 “철학은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평등한 인간으로서 기꺼이 상대의 의견을 듣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찰하는 삶”이라고 말했다. 어떠한 과시와 부담 없이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투명하게 말로 걸러낸다는 것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철학은 다른 학문보다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또한 대학을 바라보며 노력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진짜 자신이 원하는 걸 찾지 못해 방황하는 현대사회의 안타까움이 떠올랐다. 철학은 사회를 구할 수 있는가?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책임지며 철학적 사고를 기른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생각했고, 어쩌면 철학은 사회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다랐다. 또한 저자가 희망, 사랑, 연구에 집중한다는 문장이 기억에 남는다. **2장**: 2장에서는 인간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 생각하게 하여주었다. 오직 인간만이 오랫동안 무력하고, 오직 인간만이 무력한 조건에서도 살아남는다. 무력감이 오래가는 순간 두려움을 만나게 된다. 만약 주위에 빛과 행복이 넘쳐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삶에 암흑처럼 번져 있다며 작가는 두려움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 부분을 읽으며 그러니 지금 지나가는 순간순간을 즐겁게 후회 없이 보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또한 두려움의 영향력에 대해 짚어주는데, 잠깐 언급된 “폭포효과”가 기억에 남는다.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는 두려움은 두려움을 자극하는 데 큰 효과를 준다는 말에 동의하였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한다. 그것이 자극적일수록 사람들은 크게 반응하며, 이는 인터넷을 통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낳는다. 다행히도 이 세상에는 이성적인 사람들도 존재하여 감정적으로 깊이 빠지는 사람들의 생각을 환기시켜주는 예시도 책에 나와 있다. 그 예시 중엔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인 조지 부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전략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고 미국의 소중한 가치가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커지는 불안과 혼란을 잠재웠다고 나와 있었다. 진정 대통령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유진 1장: 이 책은 “민주주의는 우리가 두려움에 굴복할 때 무너진다”라는 오바마 대통령 연설을 언급하면서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 즉 그 흐름에 휩쓸리는 것은 회의적 사고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화자는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더 열심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낄 때 통제력을 움켜쥐려고 하고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구조와 법 관점보다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법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펼쳐볼 것이다. 새로운 시각에서 민주주의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점이 나에게 있어서 신선하게 느껴졌다. 화자가 감정으로 민주주의에 끼치는 효과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할지 무척 궁금하다. **2장**: 로마의 시인 루크레티우스는 “아기는 험악한 파도에 휩쓸리는 선원처럼 발가벗은 채 누워 있다. 말도 하지 못하고 살아남기 위해 온갖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자연의 힘으로 수축된 어미의 자궁에서 빛의 나라로 내던져졌다. 그 상황이 평생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아기의 애절한 울음이 방안을 가득 채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무력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증오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무력감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관점을 다르게 보면 성인들은 아기들의 울음소리에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기를 보호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는 이 순간의 고통만이 실재하며 즐거운 안락의 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다시 불안과 공포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나는 화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과 느끼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깨달았다. 나는 우리가 가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세상을 너무 작고 협소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협소한 관점들이 우리 사회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오시현 1장**: 사실 글 초반에는 민주주의에 두려움은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했던 것 같다. 두려움을 옹호하는 자 DF와 MN의 대화에서 사실 정치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사람들의 두려움이 필요하고 그걸 이용하는 것이 단합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책에서 언급되다시피 그 두려움은 사려 깊은 숙의로 걸러진 두려움이라고 한다. 두려움을 이용한 정치로 인해 사람들에게 부여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사람들이 부당함을 느껴서 시위 같은 반격을 많이 한다. 이러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감정은 분노라는 감정이 가득한데, 이 분노라는 것 자체가 사실 두려움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정치를 연결 지어서 생각한다는 거 자체가 나에겐 새로운 시각이었고 앞으로 저자가 이 감정에 빗대어 나아갈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2장**: 모든 생명체와 빗대어 인간을 우수하게 보지 않는 시선이 신기했다. 책에서 언급되는 무력감이라는 감정, 이 무력감은 다른 동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력감이 곧 생사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습득하는 일이 다분하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동물에 비해 무력감이라는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다. 2장에서는 아기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었다. 관점이 조금 새로웠는데. 갓 태어난 다른 동물들은 무력감이라는 걸 가지면 자신이 생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아서 자신의 생존 능력을 하루 빠르게 습득한다. 하지만 갓난아기는 그 무력감이라는 걸 꽤 오랫동안 지니고 생활하고 있다. 무력한 아기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이용한다고 한다. 두려움이 지독한 자기애적 감정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다. 타인에 대한 배려, 걱정 모든 감정들을 배제 시킨 채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도록 되돌린다는 것이다. 저자는 민주주의 사회와 아기의 무력감을 연관시키며 이렇게 말한다. 아기가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 혼자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게 되고, 안정감과 자신감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이다. 부모와 아이의 관계 또한 중요한데. 아이들이 지닌 두려움에 대해 부모가 겁을 먹지 않아야 하고 안정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적인 사랑이 뒷받침 된다하여도, 전쟁과 정치적 사건 등의 요소는 두려움을 다시 전염시키고 확장 시킨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북 전쟁 만해도 그렇다. 언제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있지 않는가. **신현지 1장**: 주로 두려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라 얘기하며 두려움을 통제해야 우리가 이상적으로 원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가장 먼저 들었다.

		감정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자연적인 현상을 통제하라는 말이 쉬운 말로 들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이며 이곳에서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자는 이를 활용하여 책을 서술할 것이라 생각하였고 나는 이 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스스로 검열 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 하였다. **2장**: 제목처럼 생애 최초로 겪게 되는 감정들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갓 태어난 아기가 느끼는 두려움을 묘사하는 부분이었다. 성인은 아이의 감정을 알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읽을수록 묘하게 설득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저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나쁜 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꼼짝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고 얘기한다. 배가 고파도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을 때, 기저귀가 찝찝하여도 스스로 갈아입을 수 없을 때 아기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아기는 인생에서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낄 시기를 태어나자마자 겪는 게 아닐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한 가지 문제가 경험상 확실해지면, 그 문제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가용성 편향'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두려움으로 인해 가용성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였고, 사회에서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하였다. 덧붙여 가용성 편향은 사람들을 분열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자신이 겪은 문제를 인터넷으로 공유하게 되면, 그 문제를 중심으로 분노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분노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커뮤니티 밖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분노를 전염시킨다. 분노가 전염된 사람들 또한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결국 사람들은 점점 분열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혐오 문제에서도 가용성 편향을 발견할 수 있고 당장 주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이 처한 문제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차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2주차	일시	**1월 10일 21:00~22:00 장소명: zoom**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오유진(2231273)	O
		송예진(2231241)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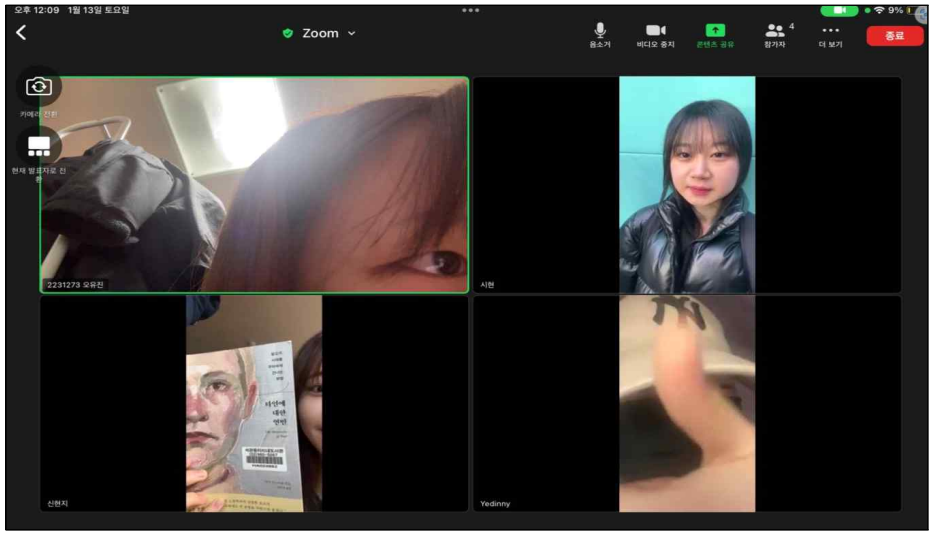
		신현지(2231012)	O
		오시현(2231192)	O
	진도	도서명: 타인에 대한 연민	진도 페이지: p.55 ~ p.95
	토론 내용	 [좌측부터 송예진, 신현지, 오시현, 오유진] [2주차 토론주제] **3장 두려움이 낳은 괴물, 분노** **4장 혐오와 배제의 정치학** 3, 4장을 읽고 인상 깊었던 점과 느낀 점 토론하기 **송예진 3장**: 3장에서는 분노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 1장에서 언급했듯 인간은 무력하며, 무력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 과정에서 타인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제공받지 못하면 분노하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공받고자 하는 관점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분노를 부정적 관점으로만 언급하지 않고 부당한 사건 자체에 부정을 느끼며 항의하며 잘못된 행동을 인식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3장에선 특히 “우리는 분명하지 않은 사실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 보복에 대한 소망은 미묘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민주사회에서 우리가 늘 동료 시민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데서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두 문장이 와닿았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분노를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두 번째 문장에서는 저자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는지 느껴졌다. **4장**: “대부분의 사회는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나이, 종교로 사람을 배제한 추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4장의 첫 번째 챕터인 [하찮은 집단은 없다.]에 나오는 문장이며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 문장처럼 모든 사회에서 혐오와 배제는 진행되었으며, 현대사회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혐오는 문화적 영향을 받아 특정 집단에 대해 일어나며, 성 소수자처럼 도덕적 논쟁과 상관없이 관념적 이미지 때문에 혐오로 나타나기도 했다. 인간의 의식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혐오를 조작하고 타 집단을 배제하는 사례들을 읽으며 답답함을 느꼈다. 결국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혐오하고 배제하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오유진 3장**: 분노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눈앞의 현실에 관해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다고 한다. 모든 정치적 분노는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고 한다. 유아기의 무력감과 성인기에 느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말이다. 그 두려움이 모든 상황을 악화시키고, 결국 정치적 해악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한다. 많은 사람은 부당함에 분노해야 정의를 이룰 수 있으며 변화의 과정에서 분노를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분노가 필요하고 부당함이나 모욕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줏대가 없거나 억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화자는 분노를 철학적으로 분석해 비폭력주의를 지지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화자는 분노로 유발된 응보적 사고는 비난에서 나아가 징벌적 사고로 이어진다고 한다. 즉, 다시 말하면 비난의 대상이 자기 행동에 대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분노의 힘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노가 있어야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한편으로는 믿고 있었다. 하지만, 화자는 보복이 없는 저항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두려움과 비난, 보복을 통해서는 타인에게서 어떤 선함도 찾을 수 없다는 말이 인상 깊었

		다. 분노라는 감정에서 벗어나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4장**: 모든 사회는 특정 집단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 복종시키려고 한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평등한 존중과 배려가 공적 규범이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의무를 저버리기란 너무 쉽다고 한다. 따라서 타인을 배제하는 감정에 대한 철학적, 심리적 분석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더 큰 호혜와 평등을 추구할 수 있는지 밝혀줄 것이라고 한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다른 감정이 있다고 한다. 바로 혐오이다. 혐오의 본능적인 감정으로 가장 흔한 반응은 구토나 구토하는 듯한 소리를 내는 것이다. 원초적 혐오는 비인지적인 단순한 감각 반응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혐오는 두드러진 인지 능력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혐오에는 대상이 '오염'되었다는 생각, 즉 섭취하거나 만지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학자들은 결론 내렸다고 한다. 화자는 사람들이 혐오를 느낄 때 원하는 것은 문제해결이 아니라 회피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었다. 일상에서 사람들은 "혐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한다.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자기는 이 상황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간접적인 의도가 포함되어있다. 바꾸려는 의지가 없다면 사회는 정체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혐오를 멈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시현 3장**: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본질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비난하기 쉬운 대상의 탓으로 돌리는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꼬집는 부분이 와닿았다. 책에서 언급되었다시피, 헨젤과 그레텔의 본질적인 문제는 부모의 올바르지 못하였던 돌봄이었는데. 정작 우리는 마녀의 탓으로 돌린다. 빨간 모자에서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문제 보다는 늑대를 악역으로 삼고 이 악역들을 처치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식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결국 잘못된 해결 방식이라는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복 없는 저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분노는 가지고 가되,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항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 감정에 치우쳐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긍정적인 방향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만 봐도,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시작된 분노를 저항과 혐오의 감정으로 이끌고 가는 것 같다. 본질적인 해결책은 없는 채로 서로를 미워하고 부정적인 감정만 가지고 가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꼬집어 주는 것 같았다.

		4장: 혐오라는 감정이 학습된 행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혐오는 본디 어릴 적에 시작된 배변 훈련 과정에서 시작이 되며, 사체, 신체의 배설물 등의 원초적 혐오와 점점 복잡한 문화적 형태를 갖춘 투사적 혐오가 있다. 그러한 투사적 혐오는 소수집단에 의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빗대어보면 책에서 언급되었던, 아시아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혹은 소수 성애자, 등등이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즉 흑인은 아직까지도 차별받고 있다고 한다. 유대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더 큰 혐오를 받아 가고 있다는 점에서 혐오의 초창기에 주는 심리학적 인식과 편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것 같다. 동성애에서도 여성의 동성애 보다 남성의 동성애를 더 훨씬 혐오스럽다고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성의 동성애는 남성의 포르노 소재로 활용될 수 있지만, 남성의 동성애는 단지, 성 혹은 그 행위에만 미쳐있는 사람들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고 혐오라는 감정이 두려움에서 빗댄 편견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암담하게 느껴졌던 것 같다. **신현지 3장**: 두려움이 일으킨 분노 그리고 분노가 일으킨 보복에 관해 설명되어있다. 저자는 계속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보복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분노라는 감정은 확실한 생각을 동반하는 명확한 감정이며, 인간은 타고난 취약성 때문에 자신이 곤란해지지 않는다면 절대 분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나는 여기서 의문점이 생겼다. 인간은 타고난 취약성 때문에 자신이 곤란해지지 않으면 절대 분노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분노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놓여있고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노한다. 한 가정을 박살 낸 음주 운전자가 텔레비전에 나온다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특히 미디어가 발달한 요즘 시대에는 나를 제외한 수많은 사람의 일들이 핸드폰 하나에 들어있다. 나의 감정들을 쉽게 남길 수도 있고, 내 감정들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곤란하지 않다고 해서 절대 분노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4장**: 혐오에 관한 내용으로 다루어졌는데 나는 특히 '투사적 혐오'에 관심이 갔다. 투사적 혐오는 자신과 다르거나 배제하고 싶어 하는 대상·집단 에게 왜곡된 혐오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거나, 폭력을 통한 상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투사적 혐오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며 책을 읽으니 투사적 혐오라는 행동이 너무나 무섭게 다가왔다. 혐오라는 감정 자체가 두려움으로부터 발생 된 무서운 감정인데,

		얼마나 크게 과장되게 왜곡될까. 내가 겪었던 기분 나쁜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겪었던 감정이 점점 확실해지고 부풀려지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많았다.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투사적 혐오 또한 점점 부풀려지면서 혐오의 대상에게 전달되면 얼마나 충격적일까. 혐오라는 감정에 왜곡이 생기면 얼마나 깊게 생겨날까. 모두가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지만 혐오라는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 조금은 슬픈 파트였던 것 같다.

3주차	일시	**1월 13일 11:00~12:00 장소명: zoom**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오유진(2231273)	O
		송예진(2231241)	O
		신현지(2231012)	O
		오시현(2231192)	O
	진도	도서명: 타인에 대한 연민	진도 페이지: p.96 ~ p.132
	토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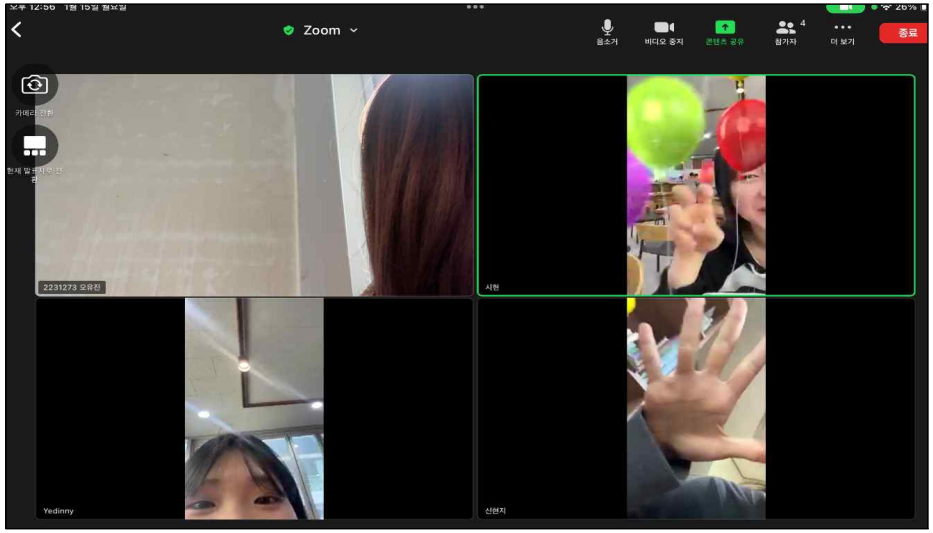
		[좌측부터 오유진, 신현지, 오시현, 송예진] [3주차 토론주제] **5장 시기심으로 쌓아 올린 제국** **6장 성차별주의와 여성혐오** 5, 6장을 읽고 인상 깊었던 점과 느낀 점 토론하기 **송예진 5장**: 두려움이 장악한 감정은 시기심을 낳는다. 이 시기심은 불확실성에서 태어나 사회에 만연하게 있으며, 민주주의를 늘 위협해 왔다고 말한다. 시기심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악의를 보였으며, 근본적으로 무력감에서 발생하고 역시 원초적 두려움과 관련이 있었다. 저자는 오늘날 시기심이 만연한 이유는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지 않아 발생하며, 시기심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자라지 않는 조건, 사랑과 창조적인 업적을 국가의 길을 밝히는 조건으로 만들어가야만 시기심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이라는 불완전한 존재 속에 자라나는 불안한 감정들을 통제할 수 있는 날이 올까. 불가능하겠지만 시기심을 비롯한 불안한 감정들을 극복하는 힘을 길러 건강한 마음가짐, 건강한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 **6장**: 모든 생명체는 본래 약자와 강자가 나누어져 있다. 성차별주의도 남성과 비교하면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틀린게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이고 서로 공존하는 방법은 충분하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 성차별주의와 여성혐오는 존재한다. 또한 저자의 말처럼 순간의 위안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다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6장에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유독한 감정들의 조합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한 모든 감정을 뛰어넘어 모두를 위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전략이다.”라는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저자의 간절함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오유진 5장**: 이 장에서 살펴볼 감정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시기심이다. 시기심은 존재하기 시작한 이래 늘 민주주의를 위협해왔다. 시기심은 오직 소수만 좋은 삶을 누린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행복을 파괴하고 싶게 만든다. 화자는 시기가 “내가 잘살기 위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외침 사회적 협력을 제로섬 게임으로 만든다고 한다. 시기심은 불확실성에서 태어

		나고 그 뿌리는 바로 두려움이다. 즉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두려움이다. 따라서 화자는 시기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지만, 인간관계든 정치계든 순수함에 대한 추구가 자신 혹은 타인에 대한 증오의 해결책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시기심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자라지 않는 조건, 사랑과 창조적인 업적을 국가의 길을 밝히는 조건으로 만들어 시기심의 고삐를 묶어야 한다고 한다. 나도 당연히 시기심이라는 감정을 느껴봤지만 순수함에 대한 추구가 해결책이라는 말이 신선하게 와닿았다. **6장**: 이 장에서는 여성 혐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다음 세 가지 해석은 여성들의 평등, 특히 공적인 삶에서의 완전한 평등을 방해한다고 한다. 1) 의무를 다하지 않는 여성 남성이 여성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헌신적인 도움과 사심 없는 공감이다. 2) 육체성을 가진 여성 동물성을 초월하고자 하는 인간의 오랜 욕망으로 인해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육체적으로 묘사되어 왔다. 3) 성공한 경쟁자로서의 여성 오랫동안 조짐을 보이다가 마침내 우리 세대에 드러난 새로운 해석이다. 경쟁과 성공에 대한 불안은 인류 역사상 보편적인 이야기다. 화자는 여성혐오는 적대감이라는 감정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적대감의 뿌리에 두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이 장을 읽고 느낀 것은 사람들은 많은 편견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느꼈다. 내가 느끼기엔 요즘 사회는 성별 갈라치기가 점점 심해진다는 것이다. 살기 힘들수록 서로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동등한 주체로 서로를 아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오시현 5장**: 두려움에 이어서 또 다른 혐오의 시작이 되는 감정, 시기심이 나왔다. 몇 명의 사람들만이 특권을 누려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여 시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릴 때 학교생활을 할 때부터 느낄 수 있는 원초적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시기심으로 시작된 행동은 결국 선한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기초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시기심은 긍정적인 감정이 아닌, 즉 어떤 일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희망적인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가 파괴되었으면 하는 감정이다. 시기와 질투가 같은 결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질투는 자신에게 있어 소중한 관계

		에 집중하지만, 시기는 그 대상의 부재에 대한 감각이라는 점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다. 시기심은 타인의 성공에 관한 관심이 크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 부족한 것을 강조한다. 시기 또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감정 또한, 어릴 때부터 긍정적인 자신감을 통해 없애갈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시기심은 정치적인 문제의 요소로도 적용이 되기도 한다. 시기심을 누르기 위해선 결국 국가에서 불확실성을 없애주어 충분히 시민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책을 펼쳐가야 한다고 본다. **6장**: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 여성이 지위적 능력을 가졌을 때 가지는 적대적 능력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조금 신선했다.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현시대는 다시 여성에 대한 인권이 올라가고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도, 성차별주의자와 여성 혐오자는 존재한다고 한다. 성차별주의와 여성혐오가 다르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책을 읽으며 처음 접하게 된 것 같다. 여성혐오는 여성이라는 인격체가 본인이 삶을 망친다는 불안과 분노의 상태라고 한다. 성차별주의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뜻한다. 성차별주의는 그 논리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사상이지만, 단순히 여성이라는 성별 자체를 싫어하고 있는 여성혐오라는 결심은 여성으로 인해 불안한 몇몇 사람들에게 잠깐동안의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기만을 한다. 책에서 언급된 트럼프 대통령은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종종 했었던 것 같다. 현재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은, 그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여성혐오에 대한 사상을 지니고 있다는 뜻일 텐데, 민주주의국가인 미국에서 이런 혐오적인 사상이 우세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웠던 것 같다. **신현지 5장**: 시기심과 질투는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시기와 질투 모두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라이벌에 대한 적대감을 포함하지만. 질투는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시기가 대상의 부재에 대한 감각인 반면, 질투는 가치 있지만 불안정한 대상의 존재 자체에 집중한다. 시기심을 통제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내가 할 수 있다면 시기보다는 질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이상한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질투는 그래도 비교되는 나의 불안정한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시기하는 그런 게으른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 물론 질투만 종일 하는 것도 좋지 않은 행동이지만 무언가를 질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

		람이 되고 싶다. **6장**: 한 여성의 입장으로 이 파트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은 없다.'이다. 나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직장을 가질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고, 남녀 모두 당연히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이러한 당연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계기도 모두가 동등할 수 있게 노력한 국가와 그 외 사람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혐오하는 성차별주의자들은 무엇인가? 그들의 생각은 얼마나 도태되어 있는 건가? 인간으로서의 존중 거부 등의 구차한 방법을 써서라도 구시대의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건가? 내가 여성이어서 더 공감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이 사회,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절대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나아가고 싶다면 그들의 사고를 180도 바꿔,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생각해내야 할 것이다.

4주차	일시	**1월 15일 12:00~13:00 장소명: zoom**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오유진(2231273)	O
		송예진(2231241)	O
		신현지(2231012)	O
		오시현(2231192)	O
	진도	도서명: 타인에 대한 연민	진도페이지: p.133 ~ p.160

	토론 내용	 [좌측부터 오유진, 송예진, 오시현, 신현지] [4주차 토론주제] **7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간다** 7장을 읽고 인상 깊었던 점과 느낀 점 토론하기 **송예진 7장**: 작가는 그럼에도 희망을 보기 위해 노력한다. 생각을 멈추지 않고 실제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희망을 생각한다. 세상은 희망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 언급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사건 사고, 위험들에 노출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처럼 희망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늘 선택의 문제다. 하지만 그럼에도 희망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희망이 가치 있는 사랑과 신뢰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움과 혐오를 직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에선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며 개인주의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선 개인의 행복이 아닌 전체적인 사회의 행복을 추구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준다.

		이 책을 통해 모두가 차분하게 불안정한 감정을 받아들이고 대응하며, 희망적인 연대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오유진 7장**: 이 장에서는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실제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희망은 무기력해서는 안 되고 무기력할 수도 없다. 희망은 행동과 헌신을 필요로 한다. 소규모 행사들이 세상을 뒤흔들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거대한 추상보다 작고 일상적인 것 들에서 감정적 자양분을 얻는다. 삶 전반에서 선하고 유용한 어떤 것이든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감정적 자양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희망은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다고 한다. 희망은 전진하고 두려움은 물러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없을 수 없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옳다면 두려움은 많은 영역에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미래를 향한 두려움에 가득 찬 접근은 결과를 통제해 줄 누군가의 보호나 독재적 지배자를 구하게 될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화자는 희망은 선택이고 현실적인 습관이라 한다. 인간이 겪는 모든 상황에는 언제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우리의 감정적 상태에 달려 있다. 나는 우리의 감정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 깨달았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넣어두고 희망을 품은 채 미래를 맞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시현 7장**: 책에서 계속 언급되었던, 두려움이 아닌 희망은 사실 두려움과 같이 공존할 수 밖에 없는 감정이다, 하지만 두려움과 희망의 차이는 결과를 바라보는 좋고, 나쁜 시선이라고 한다. 나쁜 결과를 생각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상상하는 두려움이 아닌, 더 나은 세상 더 희망적인 사상을 생각하는 희망을 우리는 쫓아가야 한다. 희망은 사실 상상과 생각일 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 가? 하는 의문점이 들기도 하지만, 희망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인 사랑과 신뢰가 생긴다고 한다. 희망과 믿음과 사랑 이 세가지 감정을 가지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당장 뉴스만 봐도, 우리는 부정적인 글들을 많이 접한다. 집 값이 올라갔다. 실업률이 최대치이다. 자살하는 빈도가 높다. 범죄의 연속이다. 사람들은 그러한 뉴스만을 접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나아질 수 없는 나라야, 난 나아질 수 없어, 왜 나

		는 이렇게 궁핍하게 살아가는데 저사람들은 행복해 보이지? 하며 혐오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지니는 것 같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희망은 습관이고 선택이다. 개인 한 명의 내면에서 시작된 작은 감정은 결국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신현지 7장**: “희망은 자체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희망 자체는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조심해야할 건 헛된 희망이다. 헛된 희망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 언제나 꿈은 크게 잡으라고 하지만 나는 이룰 수 없는 꿈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헛된 희망은 마주했을 때 좌절감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저자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두려움은 희망을 움츠려들게끔 한다. 나는 아직 두려움이 많다. 무언가를 새로이 도전하는 것에서 희망을 찾기보다는 두려움을 찾곤 한다. 두려움과 희망은 상반된 것인데, 나는 두려움이 많아 희망 자체로 좋은 결과를 볼 수 없는 것 같다. 나의 희망은 항상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있었다가도 사라진다. 지금까지 봐왔던 사회와 세계는 너무나도 작고 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움을 갖지 말고 희망을 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희망은 가치 있는 사랑과 신뢰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 문장 또한 나에게 와 닿았던 것이다. 사랑과 신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사랑과 신뢰를 나누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에 대해 각자의 희망을 품고 행동한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신뢰했는지 현실을 알아버리면 희망이란 게 사라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오유진 (2231273)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사회 문제들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독특했고 더 인상 깊었다. 사실 감정적인 치료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잊고 살아왔던 것 같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해보자고 말하고 싶다. 희망을 안고 살아가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보고 싶어졌다. 우리 모두 희망하고 사랑하자!

	2	송예진 (2231241)	최근 SNS에서 개인에 대한 행복과 성장을 다루는 자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연민>은 개인의 행복이 아닌 전체의 행복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간절하고 절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한 두려움이란 감정의 근원과 두려움으로 시작해 발생하는 여러 감정을 알게 되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어디로 이끄려 하는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그럼에도 희망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저자의 말처럼 희망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3	오시현 (2231192)	사실 처음에는 다소 정치적 견해가 담긴 책이라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하지만 정치적 요소가 주제가 아닌 개개인의 두려움으로 비롯된 혐오의 감정을 해소 해야하는 필요성과 여러 견해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었던 책이었다.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기 바쁜 우리 사회에서 미래를 위해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우리 세대 청년들이 이 책을 접했으면 좋겠다.
	4	신현지 (2231012)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겪게 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바탕으로 파생되는 감정들에 대해 심오하게 알아보았다. 저자는 주로 정치적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를 진행하였지만,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감정 자체에 집중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두려움으로부터 파생되는 분노, 혐오, 시기의 감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이 어떤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특히 감명 깊게 보았던 파트는 희망과 관련된 파트였다. 희망과 두려움은 정반대의 개념이라 두려움이 존재한다면 희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한 현상이 지금 나의 모습을 그리는 듯하여 공감되었다.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움켜쥐는 22살의 2024년을 보냈으면 좋겠다.
	5	성명 (학번)	